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

강 영 기*

차 례

- I. 프롤로그
- II. 문학지리학과 시적 대상
- III. 시 속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공간적 의미
 - 1. 고독함 혹은 그리움의 공간
 - 2. 순수자연의 공간
 - 3. 생명력의 공간
 - 4. 넉넉함의 공간
- IV. 에필로그

I. 프롤로그

시에서의 대상은 시에서 그려진 세계이다. 그것은 시의 소재, 관념, 화자의 심리적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의 대상은 자연적 대상, 인간적 대상, 사회·역사적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적 대상은 인간의 삶의 원천 배경으로서 관조와 예찬의 대상이거나 생명력을 가진 존재의 표상이 되는 사물을 의미한다.¹⁾ 이러

* 제주관광대 강사

1) 강영기, 「제주 시인의 제주 대상 시 고찰」, 『영주어문』12집(영주어문학회, 2006), pp.300~301.

한 자연적 대상의 개념을 문학지리학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장소 또는 공간과 관련하게 된다.

서귀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공간이 유명한 휴양관광지이다. 한편 서귀포는 동쪽 해안 벼랑에 걸린 정방폭포·서쪽 연외천 협곡의 천지연폭포·서북쪽의 복식화산 등이 유명하다. 또한 기온이 온난하여 부근 섬에서는 반열대식물이 자라는 데, 특히 밀감의 산지로 더욱 유명하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지닌 서귀포는 제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자리를 잡은 것은 물론이고, 문학적으로도 많은 작가들에 의해 작품의 소재로 혹은 형상화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은 시에 나타나는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주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또한 문학지리학적 측면과 시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점점으로써 시적 대상의 지닌 의미는 그 가치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학지리학적³⁾ 개념위에서 작품의 해석을 통해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를 살피기로 한다. 한편, 이 글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문학 속의 제주』(제주문화원, 1997)이다.

2) 지금까지 제주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 속에 나타난 마라도, 『영주어문13집』(영주어문학회, 2007),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31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07)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논의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

3) 이은숙,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중』(논형, 2005), p. 22.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샤프(Sharp)이다. 문학지리학이라는 말은 1907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그의 저서 제목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여러 소설가의 소설 속에 나타난 지역을 일련의 지도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1970년대에 인간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한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문학지리학이 지리학의 한 연구분야로서 그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리학의 일 분야로서의 문학지리학의 주제는 경관에 대한 해설로서의 문학 작품이나 또는 지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다.

II. 문학지리학과 시적 대상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샤프(Sharp)이다. 문학지리학이라는 말은 1907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그의 저서 제목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여러 소설가의 소설 속에 나타난 지역을 일련의 지도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1970년대에 인간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한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문학지리학이 지리학의 한 연구 분야로서 그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리학의 일 분야로서의 문학지리학의 주제는 경관에 대한 해설로서의 문학 작품이나 또는 지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다.⁴⁾ 하지만, 앞으로의 문학지리학 연구는 문학의 소재 또는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을 통해 지역이라는 공간과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소통하며 살아가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지리학적 측면에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지역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지역이라는 공간과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피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지역이라는 공간에 새겨진 역사, 지리, 정치, 심리 등을 살피고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역을 형성하는 자연과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형상화한다.⁵⁾ 이 속에 시적 대상은 놓여 있다. 시의 대상은 시의 소재이며, 시를 통해 형상화되는 대상이다. 시인은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의 지닌 시적 의미를 세상에 보여준다. 그리고 독자는 시인의 시를 통해 시적 대상이 지닌 의미를 한 층 더 음미할 수 있다. 그 대상이 지역을 형성하는 자연물일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 시는 지역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한다.

4) 이은숙,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중』(논형, 2005), p. 22.

5) 강영기,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p. 35.

문학지리학에서 볼 때 시의 대상이 되는 문학적 의미 공간은 지역 문학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의 대상을 통해 지역이라는 공간과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소통하며 살아가는 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시적 대상을 통한 의미 파악은 문학 연구의 과정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시적 대상을 통한 의미 파악은 작가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장소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⁶⁾

한편, 시의 인식 측면에서 대상을 살펴보면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실존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의미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삶의 공간을 확정하고, 시인의 자유, 시인의 주체를 확인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시인이 지닌 생의 태도와 주체적인 사고, 행동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는 결국 그가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⁷⁾ 그것은 시 속에 형상화된 대상에 대하여 시인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인식의 대상을 살펴보는 것은 문학지리학적 측면에서는 시인의 살고 있는 지역이나 시인의 삶 밝히는 작업이 되며, 시의 인식적 측면에서는 시적 대상과 문학 작품의 상호 작용을 밝히는 작업이 된다.

Ⅲ.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

시 속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는 다양성을 지닌다. 이러한 다양성은 작가가 느낀 감정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 속에는 서귀포가 지닌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인의 시 형상화

6) 강영기, 위의 글, p. 34.

7) 강영기, 『한국 현대시의 대비적 인식』(푸른사상, 2005), p. 35.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를 살피기로 하자.

1. 고독함 혹은 그리움의 공간

서귀포는 항구이다. 그래서 항구가 지닌 고독함의 여운이 작가에게 전달되고 이것을 시인은 시로 형상화한다. 이 속에서 고독함 혹은 그리움은 서귀포가 지닌 문학적 공간 의미가 된다.

수직으로 쏟아지는 하얀 비는
한 나절 내내 서귀포 밤배를
동여 매고
배가 닿은 서귀포엔 겨울비가 울고 있다.

서귀포 바다 길은 미세한 혈관으로
뒤영켜 휘어져 있고
멀리 떠난 고독한 배 한 척
안개 속 빗줄기 붙들고
길을 헤맨다.

— 강영환, 「서귀포 바다길엔 겨울비 내리고」에서

서귀포라는 공간 속에서 “밤”과 “겨울비”로 표현되는 시간적 요소는 시인에게 고독감을 준다. 그 고독감은 “배가 닿은 서귀포엔 겨울비가 울고 있다.”를 통해 인용 시 속에서 시의 전체적 분위기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시인은 시상의 전개 속에서 고독함의 깊이를 더해 간다. 그것은 “고독한 배 한 척 안개 속 빗줄기 붙들고 길을 헤맨다.”로 나타난다.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겨울비 내리는 서귀포가 지닌 고독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감정을 시로 형상화한다.

바람의 연주숨씨에
알몸으로 떠는

제주도의 성감대
서귀포

약기가 된 바다
달빛만 닿아도
오르가슴에 편다

돌고 돌아
되돌아오는
서귀포 그리움

황홀한 그리움의 씨 뿌리며
숨바꼭질하는
서귀포 바람.

— 이건설, 「그리움의 씨를 뿌리며 숨바꼭질하는 서귀포 바람」에서

인용 시에는 그리움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시인은 그리움이라는 서귀포의 의미를 “돌고 돌아 되돌아오는 서귀포 그리움”이라고 표현한다. 시인에게 그리움의 감정을 제공한 것은 서귀포의 바람이다. 그 바람은 파도를 일렁이게 만들고 파도의 일렁임은 다시 시인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인과 서귀포와 바다는 “달빛만 닿아도 오르가슴에 편다”. 시인은 그리움의 감정을 “황홀한 그리움의 씨 뿌리며 숨바꼭질하는 서귀포 바람”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서귀포와 자신의 지닌 감정의 폭을 드러낸다.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 중 하나는 고독함 혹은 그리움이다. 그것은 항구가 지닌 속성 중의 하나이며, 바다를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지닌 감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요소를 시인은 놓치지 않고 시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담아낸다.

2. 순수자연의 공간

서귀포를 형상화하면서 담아내는 의미 중에는 순수자연의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다. 물론, 어느 문학 작품을 살펴봐도 순수를 추구하는 작품은 많다. 이것은 바로 작가가 지닌 혹은 인간의 지닌 보편적 지향성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 속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에서는 순수자연을 지향하는 시인의 의지 혹은 의미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비단실 폭포수 필력이며 쏟아진다
 칠선교 타고내린 선녀들
 수정알같이 맑고 깨끗한 물 속에 들어 앉아
 살짝 살짝 물결치는 모습
 수채화처럼 비디오처럼 아름답다
 세상의 번민 시리도록 씻어내고
 온 천지 푸른 계곡에 새소리 들리니
 일상으로 한 발자국 옮길 수 없다

— 김주, 「천제연폭포에서」에서

인용 시에는 시인의 순수자연 추구가 드러난다. 그 추구의 장소는 “천제연폭포”이다. 시인은 “천제연폭포”에서 “수정알같이 맑고 깨끗한 물 속”이라는 시구와 “세상의 번민”이라는 시구의 이항대립을 통해 순수자연의 모습 혹은 순수자연 지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인은 “온 천지 푸른 계곡에 새소리 들”린다는 표현을 통해 이미 자신은 순수자연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한다. 시인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일상으로 한 발 자국 옮길 수 없다”고 진술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용 시에 나타난 시인의 태도 속에는 천제연폭포가 지닌 순수자연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서귀포가 지닌 의미가 된다.

출렁이는 바다에
갈매기가 난다

11월의 서귀포
노오란 감귤이 익는다

인자한 할아버지의
누워 있는 얼굴 같은
한라산 산정은
입김처럼 구름이 영겨 있다.

— 성기조, 「서귀포에서」 전문

인용 시에도 순수자연의 모습이 형상화된다. 그것은 “바다”, “갈매기”, “노오란 감귤”, “한라산”이라는 시어가 만든 이미지이다. 시인은 순수자연의 서귀포를 “인자한 할아버지의 누워있는 얼굴” 위에 “입김처럼 구름이 영겨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려낸다. 이 속에는 순수자연을 추구하는 시인의 욕망이 담겨져 있다.

지금까지 순수자연의 의미를 지닌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연 그 자체인 서귀포에서 그 자연을 닮고 싶은 시인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詩作의 형태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시인은 시를 통해 순수자연의 지향과 자연의 모습을 들려준다.

3. 생명력의 공간

바다는 생명력의 공간이다. 그래서 바다 곁에 근접한 서귀포도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쳐난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시인의 詩作 과정을 통해 대상의 지닌 의미 또는 속성을 형상화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생명력의 공간은 서귀포가 지닌 문학적 공간 의미가 된다.

바다는
섬을 맴돌며
끊임없이 섬사람들을 부른다

섬사람들은
바다가 부르는 소리따라
멀리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바다와 섬사람들은
한평생 서로 껴안고 살면서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질푸른 바다
억척스러운 섬 사람들
오늘도 약동하는 생명이 눈부시다.

— 송희철, 「서귀포에서」 전문

인용 시에 등장하는 바다는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시인은 바다를 “섬을 맴돌며 끊임없이 섬사람들을 부르”는 존재로 표현한다. 하지만, 바다와 섬사람들은 한 평생 서로 껴안고 살면서도 목숨을 빼앗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공존하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를 시인은 더 큰 공존관계로 만들어 낸다. 그 관계는 바다가 지닌 생명력과 서귀포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질푸른 바다”와 “억척스러운 섬 사람들”의 만든 공존의 서귀포에서 “약동하는 생명”을 눈부시게 바라 볼 수 있다.

서귀포,
앞바다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다, 꿈은 수심보다
드깊다, 잠결을 시나브로 뒤척거리는

바람, 바람을 달려온 조랑말이 바람을
밟는다, 말발굽에 한낮의 햇살이
부스대다, 말굽소리가
눈부시다, 빛을 숨쉬는 나른한
봄비늘, 갈매기가 까락까락 빗가루를
삼킨다, 선잠 깬 눈썹에 수평선이
가물가물하다
서귀포,
잔잔한 하늘이 누비이불처럼
보들보들하다

— 조영서, 「서귀포, 봄비늘」 전문

인용 시에서 시인은 서귀포 앞바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생명력이다. 그래서 “서귀포, 앞바다가 늘어지게 낮잠을 잔”다는 표현은 자연의 주는 평화로움이 된다. 또한 “조랑말의 바람을 밟는다”, “한 낮의 햇살이 부스대다”, “갈매기가 까락까락 빗가루를 삼킨다”는 표현은 서귀포 앞바다가 지닌 생명력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시인은 시상의 전개를 극대화하면서 서귀포 앞바다가 지닌 생명력의 의미를 심화시킨다. 그것은 인용 시의 전체적 의미를 아우르는 “서귀포, 잔잔한 하늘이 누비이불처럼 보들보들하다”는 표현이다.

인용 시에 드러난 “누비이불처럼 보들보들하다”가 주는 감각적 의미는 산뜻함, 부드러움이다. 이러한 감각적 의미가 앞에서 제시한 생명력과 만났을 때 그것은 시가 전하려는 전체의 의미를 형성한다. 그 의미는 바로 서귀포가 지닌 생명력이다.

이상을 통해 생명력의 의미를 지닌 서귀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귀포가 지닌 건강함과 포근함은 서귀포가 지닌 생명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시적 형상화를 통해 의미로 남는다.

4. 넉넉함의 공간

자연은 인간에게 넉넉함을 준다. 자연 요소인 서귀포 역시 넉넉함을 준다. 이러한 넉넉함을 느낀 시인은 시를 통해 그것을 형상화한다. 여기서는 서귀포가 지닌 넉넉함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는 그렇게
가진 모든 것을
못 주어 한이었다.

정방에서는
가난한 노모의
남새밭 냄새가 난다.

도시의 자식들을 기다리는
노모의 토요일 오후처럼
정방은 온 종일
마당 가득 한 철 농사를 꾸린다.

— 박남수, 「정방폭포·1」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라는 시구는 넉넉함을 표현한 것이다. 넉넉함을 지닌 대상은 “도시의 자식들을 기다리는 노모”가 아니라 정방폭포이며 서귀포이다. 그래서 정방폭포는 찾는 사람들에게 가슴 가득 물줄기를 있는 만큼 나누어준다. 이러한 모습을 시인은 “가난한 노모”에 빗대어 이야기한다. 노모는 비록 가난 하지만 도시의 자식들에 한 철 농사한 산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꾸려준다. 이 속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방폭포 역시 찾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준다. 결국 시인의 詩作을 통해 궁

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방폭포가 지닌 가슴 넓은 혹은 넉넉함이다.

흰구름 한 점 졸다가 떠가고
고향의 인심 마냥
늘 포근한 서귀포 마을로 가는
길의 어귀에 들어서면

어머님의 품 속처럼 마을의
인정이 따스게 다가온다.

전설 같은 항구의 얘기가 익어 갈 때
먼 타국의 바다 같은 물 속으로 떠난
해녀들이
하루의 삶을 광주리에 담아 돌아온다.

— 이준모, 「서귀포 마을로 가는 길」에서

인용 시에서 시인은 서귀포를 고향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서귀포에는 포근한 인심이 있으며,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스함이 있다. 이렇게 시인이 지닌 서귀포의 심리적 요소 속에는 넉넉함이 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넉넉함 위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서귀포를 형상화한다. 비록 “해녀들이 하루의 삶을 광주리에 담아”오는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정신적 넉넉함은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용 시의 제목인 “서귀포 마을로 가는 길” 속에는 서귀포가 지닌 넉넉함을 좇아 서귀포로 가는 시인의 마음 또는 의미지향이 상징처럼 담겨져 있다.

지금까지 서귀포가 지닌 넉넉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넉넉함은 자연이 만든 넉넉함도 있지만 정신적 넉넉함도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인용 시에 나타나는 “노모”도 “어머니”도 “해녀”도 넉넉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어들의 시적 의미들은 시인의 지닌 서귀포라는 의미와 만나 더 큰 의미를 창출한다. 그것은 서귀포가 지닌 넉넉함이다.

IV. 에필로그

지금까지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를 살펴보았다. 서귀포는 자연 속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의미는 시인의 시적 형상화 과정을 통해 세상에 표출된다.

이 글에 나타나는 서귀포의 의미는 크게 고독함 혹은 그리움, 순수자연, 생명력, 넉넉함을 담고 있다.

고독함 혹은 그리움의 공간 서귀포는 항구가 지닌 속성 중의 하나이며, 바다를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지닌 감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요소를 시인은 놓치지 않고 시로 형상화한다. 순수자연의 공간 서귀포는 자연 그 자체인 서귀포에서 그 자연을 닮고 싶은 시인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詩作의 형태를 통해 나타난다. 한편, 생명력의 공간 서귀포는 서귀포가 지닌 건강함과 포근함이 서귀포가 지닌 생명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시적 형상화를 통해 의미로 남는다. 한편, 넉넉함의 공간 서귀포는 자연이 만든 넉넉함도 있지만 정신적 넉넉함도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시인은 더 큰 서귀포를 창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적 의미들은 각 각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진정한 서귀포를 형성하는 문학적 공간 의미가 된다. 서귀포를 형상화한 시를 살펴보아도 서귀포는 자연에서 숨 쉴 때 아름답다. 문학의 입장에서 어떠한 인공이 첨가되지 않은 서귀포를 기대한다. 그 속에는 문학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향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 핵심어: 문학지리학, 문학적 공간 의미, 시적 대상, 의미, 서귀포

<참고문헌>

- 강영기, 『한국 현대시의 대비적 인식』 푸른사상, 2005.
- 강영기, 『제주문학담론』 국학자료원, 2006.
- 강영기, 「제주 시인의 제주 대상 시 고찰」 『영주어문』12집, 영주어문학회 2006.
- 강영기, 「시 속에 나타난 마라도」 『영주어문』13집, 영주어문학회, 2007.
- 강영기,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3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 이은숙,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 공간-중』 논형, 2005.
- 제주문화원, 『문학 속의 제주:시선집』 1997.

<Abstract>

Literary Space Seen Through Poems On Seogwipo

Kang young-gi

This writing proposes to examine the meaning of poems on Seogwipo,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so called 'literary-geographical' view.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shows that what the beautiful city, Seogwipo means is loneliness, aspiration, natural purity or spiritual richness.

Such poetic meanings are elements that form the real identity of Seogwipo in its geographical space. After all, the meanings are not separated but integrated. That is why each meaning is very important.

- Key words: literary geography, literary space, meaning of poems, poetic object, Seogwipo